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사)한국가금학회 창립 50주년

가금산업의 미래와 과제 제시

양계업 초창기인 1960~70년대 국내 가금산업을 이끌어온 2개의 축이 있었다. 1962년 설립된 (사)한국가금협회(양계협회 전신)와 1973년 설립

된 (사)한국가금학회다. 한국가금협회는 가금산업의 주축이 되어 농가교육(사양, 질병 등)과 정보 전달을 통해 양계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고 한국가금학회는 사양기술 및 영양 등 연구사업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기술 등을 보급하는데 앞장서 왔다. 올해로 한국가금학회가 창립 5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이하였다. 지난 12일에는 50주년을 기념하여 춘계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가금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되짚어 보고 조망하는 주제로 열렸다.

초창기 마당닭에서 시작되어 규모화, 집단화 된 현재의 양계산업은 산업화와 더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가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올 정도로 높아졌으니 우리나라도 양계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들어도 어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스마트 폰으로 계사내 환경을 확인하고 컨트롤 하는 최첨단 기술이 보급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가공기술도 다양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국내 삼계탕은 외국에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정도로 K-Food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가금산업은 시대가 흐를수록 더욱 더 큰 숙제를 풀어가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초창기 축산업을 이끌어 오던 가금산업이 타 축종에 밀려 다소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여년 전부터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도 양계산업의 복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대체육 시장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금산업 뿐만 아닌 축산에 위협을 주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인식 확대 및 동물복지 시장이 커지면서 사육환경에도 새로운 변화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래는 종자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대부분 닭들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면서 국내종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

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금(양계) 산업이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학회 발표자중 한 연사는 “최근 들면서 가금산업이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양계협회와 가금학회가 동반자로 함께 한 것처럼 미래산업도 양계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미래를 구상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대체식품’ 시장 축산업 위협

철저한 분석과 대처 필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약 92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식육의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급증하는 육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육의 공급량을 점차 늘려가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문제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식물성 대체식품은 식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활용하여 축산식품과 유사한 형태나 맛이 나도록 하는 제조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다.

‘대체식품’들이 가진 특성들을 이용하여 만들어내는 제품은 향후 축산업 뿐만 아닌 가금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가져올 미래의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생산자와 소비자, 업체들로 구성된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식물을 이용한 비건제품(동물&식물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국내외적으로 상용화가 된 상태이며, 이 제품에 보다 고기 맛을 낼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허용범위 등에 대해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사례에서 식물성 대체육을 명확히 명기하고 고기제품 이름 사용하는 것 까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의 대체식품 시장은 소고기에 주력해 왔으나 미국에서는 치킨 대체식품 제품을 내놓는다면 식육생산 기술중 하나인 배양육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는 닭고기 배양육 판매를 허용하였고,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배양육의 식용 안전성을 인정하면서 대체육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축산업을 지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위협으로 다가오는 대체육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다. **양계**